

##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의 약진요인에 대한 분석\*

강우진 | 경북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글은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의 결과를 조봉암의 약진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먼저 시도별 득표율의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952년 제2대 대선결과와 일정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조봉암이 과반을 득표한 20개 시군의 4분의 3은 해방후 좌익지수가 높았던 경남과 경북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 해방후 좌익지수가 56년 선거에서 조봉암의 득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터뷰를 포함한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56년 대선에서의 확인된 조봉암 지지는 피해대중을 위한 조봉암의 일관된 노선과 평화통일을 추구한 제3노선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다.

56년 대선은 집권 3기를 맞이하는 이승만 정부의 몰락을 알리는 역사적 변곡점이었다. 또한 56년 대선 결과 보수야당의 길이 제도화되었다. 56년 선거과정과 결과는 당시 한국정치의 한계와 범위를 나타냈다.

주제어 | 1956년 대통령 선거, 조봉암, 해방공간 좌파 지수, 도시화

\* 이 연구의 초고는 2016년 해위 윤보선 기념 사업회와 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건설적인 논평을 해주신 박찬욱 교수님과 세분의 익명의 논평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1956년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선거/제4대 부통령 선거(56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단국가가 제도화된 48년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난 56년 대선은 한국 전쟁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계기였다.

먼저, 56년 대선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민들에 의한 최초의 직접 선거였다. 이전 선거였던 제2대 대통령/제3대 부통령 선거(52년 대선)가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서 도입된 직선제를 통해서 치러졌다. 하지만, 이 선거는 전쟁 중에 치러진 일종의 예외적인 선거였으며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던 선거였다(서중석 1999).

둘째, 한국 전쟁 와중에서 발생한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서 가까스로 정권 연장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의 취약성이 56년 대선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 56년 대선은 사실상 이승만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와도 같은 선거였다. 선거 결과 국가권력을 동원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전체 총 투표수(9,067,063)의 과반수를 간신히 넘는 득표(5,046,437, 55.65%)를 얻는데 그쳤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승만의 유일한 경쟁자가 되었던 조봉암은 52년 대선에 비해서 2.5배에 가까운 득표(2,163,808, 23.8%)를 획득하여 이승만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다.<sup>1)</sup> 또한 같이 실시된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은 광범위한 투개표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사실상 후계자였던 집권 자유당의 이기붕을 꺾고 당선되었다.<sup>2)</sup>

셋째, 56년 대선에서 제삼의 길을 표방했던 조봉암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하게

---

1) 개표 결과는 이승만과 자유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투개표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전체 투표자의 55%만을 얻었다. 또한 서울에서도 60만 8741명의 투표자 중에서 무효표인 28만 4,359표보다 적은 20만 5,253표를 얻는데 그쳤다.

2) 장면의 부통령 당선은 81세 고령이었던 이승만의 유고시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연구는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된 56년 정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완범 2004).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선거는 야당의 보수화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마도 이 선거는 민주화 이전 시기에 보수 야당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반독재를 기치로 연합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다.<sup>3)</sup>

넷째, 56년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제3의 길이 정치적으로 제거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선거후 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민주 사회주의 정당 창당 논의과정에서 진보세력은 분열하였다. 결국 조봉암 계열만이 중심이 되어서 56년 11월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조봉암과 진보당의 주요세력은 간첩죄로 기소되었고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sup>4)</sup> 이후 한국의 사회 민주주의 세력은 1960년 4월 혁명 이후 일시적인 해빙을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민주화 이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할 때까지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56년 대선이 가지는 역사적·정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 중에서 56년 대선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매우 소수만 존재한다(문중섭 2007; 손호철 2011). 현재 존재하는 소수의 선행 연구 중에서는 손호철의 연구(2011)가 선구적이다. 하지만 손호철의 연구는 아쉽게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그쳤다.

이 글은 시군단위로 수집된 집합자료를 이용하여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약진 요인에 대한 경험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적 대중기반 가설’과 ‘신익희 추모지지 가설’, ‘조봉암 노선에 대한 지지’ 가설을 새롭게 수집된 시군단위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손호철 2010).

- 
- 3)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 조항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1954.11.29)으로 인해서 호헌동지회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호헌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범야신당 운동은 조봉암의 영입을 둘러싸고 조봉암을 배격하는 자유민주파와 영입을 추진한 민주 대동파로 분열되었다. 자유민주파를 중심으로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이 창당된다. 한국의 민주당 계열 보수 야당은 1955년 민주당을 야당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 4) 민주화 이후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18일 진보당 사건이 이승만의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제기하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진보당 사건 후 52년 만인 2010년 1월 20일 대법원은 유족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로 청구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진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먼저, 조봉암과 진보당 그리고 56년 대선에 대한 소수의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56년 정부통령 선거결과를 시도별 집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4절에서는 이 글의 경험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측정을 논의하고 경험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분석의 결론과 함의를 논의한다.

## II.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지지와 56년 대선에 대한 선행연구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나 56년 대선 결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적다.<sup>5)</sup> 먼저, 56년 대선 결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현재까지 56년 대선 결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는 단 두 편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문중섭 2007; 손호철 2010).

먼저, 손호철(2010)의 연구는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득표와 63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득표에 잔존 좌파세력(에 대한지지)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손호철의 연구는 도·군별 급진도,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득표율, 그리고 63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득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뷰, 선거상황, 그리고 언론 기사 등을 추가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해방정국의 진보세력

5)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소수이지만 조봉암과 진보당의 이념과 노선을 분석한 연구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정치이념의 역사 속에서 조봉암과 진보당의 노선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서중석 2003). 둘째, 계획경제에 의한 공정분배를 통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회 민주주의 노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윤상현 2006; 정태영 외 1999). 셋째, 냉전구조의 해체와 한반도 평화공존을 추구했던 평화통일 노선을 중심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다(홍석률 2001). 이에 대한 분석은 정승현(2013)의 연구를 참조하라.

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상당히 잔존하여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지지로 이어졌다. 실제로 해방정국에서 좌파 세력이 강했던 많은 지역에서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또한 조봉암에 대한 지지 만큼은 아니지만 63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득표 또한 해방정국의 좌파지수, 56년 조봉암의 득표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호철의 분석은 유권자의 진보적 투표 행태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 개척적인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손호철의 연구 역시 지역단위의 상관관계 분석에 머물러 인과관계 추적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문중섭(2007)은 56년 대선 결과를 시대적 맥락을 통해서 재해석한다. 그는 조봉암 득표요인과 조봉암 감표요인을 대비시킴으로써 1950년대 한국의 정치이념 지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조봉암의 득표요인으로서 일차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사회 민주주의적 전통이다. 둘째,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의 높은 사회운동과 해방 후 나타났던 좌파 운동이 조봉암의 득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손호철(2010)이 확인한 바대로 조봉암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득표를 했던 경상남북도과 전라남북도는 일제강점기 사회운동 지수와 해방 후 좌익지수가 높은 지역이었다. 셋째, 조봉암의 정치이념과 선거공약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평생 피압박 대중들의 삶의 문제에 천착했던 그의 정치 역정과 냉전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추구했던 그의 정치노선이 지지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그는 조봉암의 득표를 저해한 요인으로서 억압적인 선거환경과 거세당한 선거운동, 광범위한 투개표과정의 부정, 그리고 낮은 인지도를 꼽았다. 반공독재체제였던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로 부상한 조봉암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탄압하였다. 또한 국가권력을 이용한 광범위한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이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다. 56년 대선 이후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과 선거본부장 윤길중은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고 주장하였다.

문중섭의 연구는 50년대 정치 이념 지형의 맥락에서 조봉암 득표에 미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 속에서 인상비평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56년 제3대 대선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진보당의 정치적 기반과 활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가 적은 수이지만 존재한다. 먼저 최정기(2001)는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1950년대 조봉암에 대한 지지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조봉암에 지지를 추적한 그의 분석에 따르면 조봉암을 지지한 세력들은 반이승만 세력이었다는 일차적 공통점을 가졌지만 지주계급에 기반을 둔 보수야당이었던 민주당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이들은 자유당 내의 족청세력, 1950년대에 새롭게 성장한 사회운동가와 지식인 세력, 일제 강점기와 해방공간을 견디어 버틴 잔존좌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회운동 세력과 같이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있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들을 묶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은 평화통일이라는 조봉암의 일관된 노선과 정책이었다(86).

성병욱(2006)은 1950년대 진보당이 직면했던 제약요인을 외재적 제약요인과 내재적 제약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재적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 먼저, 진보당은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분단국가의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형성된 반공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적 효과가 진보당의 대중적 기반의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와 미 군정기를 겪으면서 유지된 강력한 국가기구는 한국전쟁을 이후 급속하게 비대화되었다. 반면에 본격적인 산업화의 지체로 계급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익단체와 사회단체의 발전 또한 지체되었다. 국가에 종속된 사회적 발전의 지체는 진보정당의 발전에 외재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반공이념을 중심으로 한 지배이념과 좌우의 이념적 양극화는 진보정당의 발전에 제약을 가하였다. 다음으로 내재적 조건을 살펴보면 그는 진보당이 제시한 노선요인, 간부정당으로서 대중조직과의 연계가 취약한 조직적 구조, 조봉암의 개인의 권위와 위신에 의존했던 지도자 요인들을 지적했다.

### III. 집합자료로 살펴본 56년 대선 결과-시도별

#### 1. 56년 대선의 전사(全史)

56년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의 여론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56년 대선에 대한 유권자 여론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선택으로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

먼저, 56년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52년 대선<sup>6)</sup>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집합적 결과에서 드러난 유권자 선택의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본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결과는 유권자 투표 선택의 지역적 배분이다. 이승만과 조봉암에 대한 지지의 지역적 배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두 후보에 대한 지지의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치러졌던 제2대 대선(1952)에는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국민당(민국당)의 이시영, 무소속의 조봉암, 무소속의 신흥우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의 이승만은 총 투표수(7,275,883)의 74.6%(5,238,769)를 얻어 11.4%를 얻는데 그친 무소속의 조봉암(797,504)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민국당의 이시영은 10.9%(764,715)를 얻어 조봉암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선거 결과 이승만은 유효투표의 4분의 3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제1야당이었던 민국당의 이시영 후보는 무소속 후보였던 조봉암에도 뒤짐으로써 대안세력으로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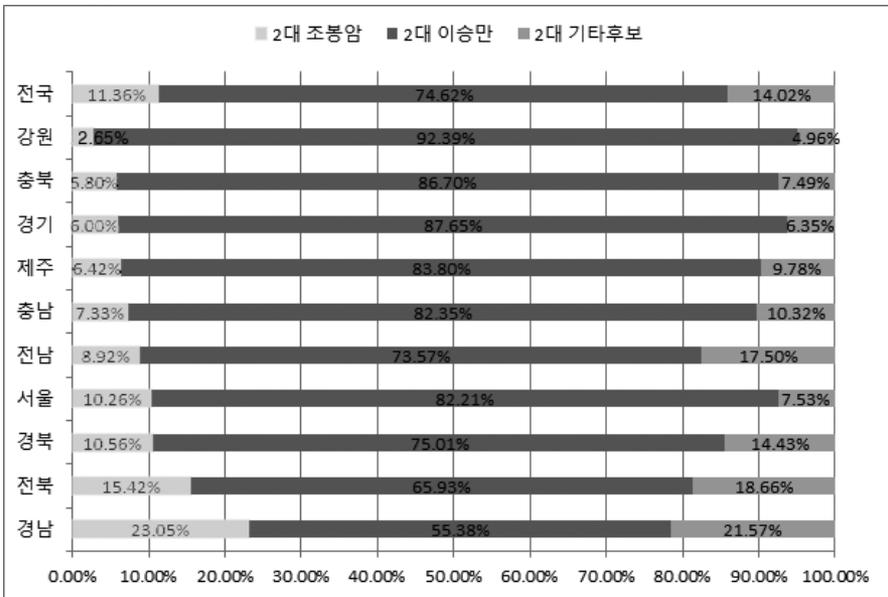
<그림 1>은 52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지역별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후보별 지역별 득표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이승만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나타낸 상위 5지역은 강원

6) 52년 대선 결과와 56년 대선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중요한 제약이 존재한다. 먼저 52년 대선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의 여파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56년 대선은 제1야당의 유력후보였던 신익희가 선거유세도중 사망함으로써 제1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논의하듯이 두 선거에서 나타난 이승만과 조봉암 지지의 지역적 배분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92.39%), 경기(87.65%), 충북(86.70%), 제주(83.80%), 충남(82.35%) 순이었다. 반면에 이승만은 경남과 전북에서 각각 65.93%와 55.38%를 득표하여 가장 낮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조봉암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낸 지역은 23.5%를 얻은 경남 지역 지역이었으며 전북(15.42%)과 경북(10.56%)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강원지역에 단지 2.65%를 얻는데 그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제1 야당이었던 민국당의 후보 이시영은 경남에서 21.57%를 얻어서 평균 득표율(10.9%)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전북(18.66%), 전남(17.50%), 경북(14.43%)이 그 뒤를 이었다.

요컨대, 한국 전쟁 중에 치러진 52년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 이승만은 삼팔선 접경 지역이었던 강원도와 경기지역에서 선전하였다. 반면에 야권은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44.62%)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으며 전남(34.08%)과 경북(25.42%)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결과의 지역별 득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 (<http://info.nec.go.kr>)

한국 전쟁 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는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제 3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이 선거는 이전의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제헌의회, 제2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선거였다. 먼저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를 이끌었고 집권당(자유당)이 존재한 채 치러진 선거였다. 두 번째,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최초로 의원 공천제를 실시하였고 제1 야당이었던 민국당도 후보공천제를 실시하여 정당이 주도한 선거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셋째, 선거의 공천과정은 이승만의 3선을 위한 개헌과 연계되었다(서복경 2011).

선거 결과 집권 자유당은 전체 203석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114석을 획득하였지만 개헌을 위한 3분의 2의석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반면에 제1 야당이었던 민국당은 단지 15석을 얻는데 그쳐 대안세력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데 실패하였다. 제3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의 선전이 유지되어 67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다.<sup>7)</sup>

## 2. 56년 대선

집권 자유당은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에 올랐으나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대통령 이승만의 3선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던 자유당은 사사오입 개헌(1954.11.29.)을 통해서 이승만의 집권연장을 시도하였다. 이후 야당의 각 세력들은 ‘호헌동지회’를 구성하여 이승만의 집권연장에 초당적으로 대항하였다. 호헌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범야권 신당 추진운동은 조봉암의 영입을 둘러싸고 ‘민주대동파’와 ‘자유민주파’로 분열되었다. 민주 대동파는 조봉암을 포함하는 야권의 대통령합을 추진했던 반면에 자유 민주파는 조봉암의 공산당 경력을 문제삼아 조봉암 세력을 배제한 채 보수야당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결국 자유민주파를 중심으로 통합보수야당인 민주당이 출범하였다. 이에 조봉암

7) 득표율을 살펴보면 자유당은 36.8%(2,756,081)를 얻었던 반면에 민국당은 7.9%(593,499)를 얻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47.9%(3,591,597)를 획득하여 자유당 후보자들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후보자 수의 차이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출마자는 전체 출마자의 66.0%인 797명이었다. 자유당은 20.1%인 242명이었던 반면 민국당은 6.4%인 77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635).

은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3대 대선에 독자적으로 임하였다.

56년 대선 선거 도중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 결과 56년 대선은 사실상 이승만과 조봉암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유력한 후보였던 신익희가 사망하자 민주당과 진보당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지속하였다. 진보당 추진위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출이 사퇴함으로써 민주당이 조봉암을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지지할 것인가 여부가 선거 정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는 조봉암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심지어는 당내 유력인사였던 김준연이 조봉암에 투표하느니 이승만에게 투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sup>8)</sup> 결국 민주당은 5월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단념하고 부통령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여 사실상 단일 후보였던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였다(박태균 1995, 241-242).

<표 1>은 56년 대선 투개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56년 대선에서 선거인수는 인구수(1955년 9월 1일을 기준) 21,526,374의 44.6%에 해당하는 9,606,870였다. 투표인 수는 선거인 총수의 94.4%에 해당하는 9,067,063로 나타나 제2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었던 88.1% 보다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대한민국 선거사 제1집 1973, 739).

56년 대선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52년 대선에서도 확인된 유권자 지지의 지역적인 분절화가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강원도에서는 유효투표의 90.8%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단지 과반수가 약간 넘는 55.3%만을 얻었다. 이에 반해서 조봉암은 경북에서 과반수에 근접하는 44.7%를 얻었지만 강원도에서는 겨우 9.2%만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또한 총투표자수의 15%에 가까운 1,856,818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52년 대선에서 무효표는 단지 3.5%에 지나지 않았다. 56년 대선에서 예외적인 대량의 무효표가

8) 민주당 소속 민의원이었으며 죽산 조봉암과 함께 조선 공산당을 창당을 주도하기도 했던 김준연은 1956년 5월 9일 개인 성명을 통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의 서거로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의 당선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나 대통령 후보자로서 조봉암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이승만 박사를 지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956/05/10, 정태영·권대복·오유석 편, 1999, 126).

〈표 1〉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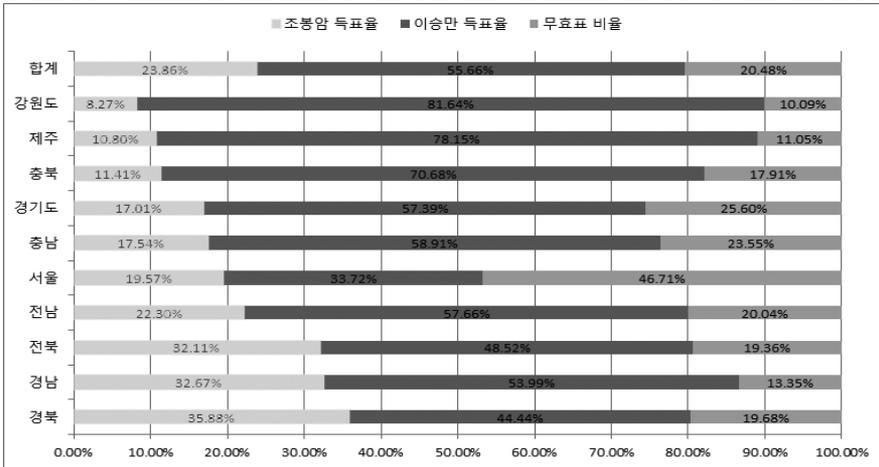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계
		유효	무효	계				이승만		조봉암		
								득표	비율	득표	비율	
서울	703,709	324,382	284,359	608,741	95,058	86.5	53.8	205,253	63.3	119,129	36.7	324,382
경기	1,119,859	787,907	271,064	1,058,971	60,888	94.6	74.4	607,757	77.1	180,151	22.9	787,907
충북	521,061	410,227	89,517	499,744	21,317	95.9	82.1	353,201	86.1	57,026	13.9	410,227
충남	961,871	688,504	212,067	900,571	61,300	93.6	76.5	530,531	77.1	157,973	22.9	688,504
전북	910,506	705,742	169,468	875,210	35,356	96.1	80.6	424,674	60.1	281,068	39.8	705,742
전남	1,330,477	1,028,410	257,768	1,286,178	44,299	96.7	80.0	741,623	72.1	286,787	27.9	1,028,410
경북	1,492,013	1,123,447	275,275	1,398,722	93,291	93.7	80.3	621,530	55.3	501,907	44.7	1,123,447
경남	1,646,398	1,332,999	205,338	1,538,337	108,061	93.4	89.6	830,492	62.3	502,507	37.7	1,332,999
강원	804,325	709,963	79,710	789,673	14,652	98.2	89.9	644,693	90.8	65,270	9.2	709,963
제주	116,501	98,664	12,252	110,016	5,585	95.2	88.9	86,683	87.9	11,981	12.1	98,664
합계	9,606,870	7,210,245	1,856,818	9,607,063	539,807	94.4	79.5	5,046,437		2,163,808		7,210,245

출처: 『대한민국 선거사』 제1집, 739-741.

발생한 것은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갑자기 사망했던 민주당 신익희 후보에 대한 광범위한 추모 표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9)</sup>

56년 대선에서 대량의 무효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이승만과 조봉암에 대한 지지와 무효표의 관계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는 투표총수 대비 두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과 무효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9) 민주당 중앙 선대위는 5월 10일 성명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함으로써 유일한 야권 후보로 남은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였다. 또한 “고인을 추모하는 심정에서 고 신익희씨에게 투표할 작정인데 어쩌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허다한 바 그것은 각각의 자유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투표는 법적으로 무효취급이 될 것이나 불법이 아닌 것이며 정치적으로 의사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56/05/11, 정태영, 오유석, 권태복 편 1999, 127-128). 이로서 민주당은 사실상 신익희 추모 표를 독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56년 대선 지역별 득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 (<http://info.nec.go.kr>).

참고: 퍼센트는 무효표를 포함한 총 투표수 대비 각 후보자와 무효표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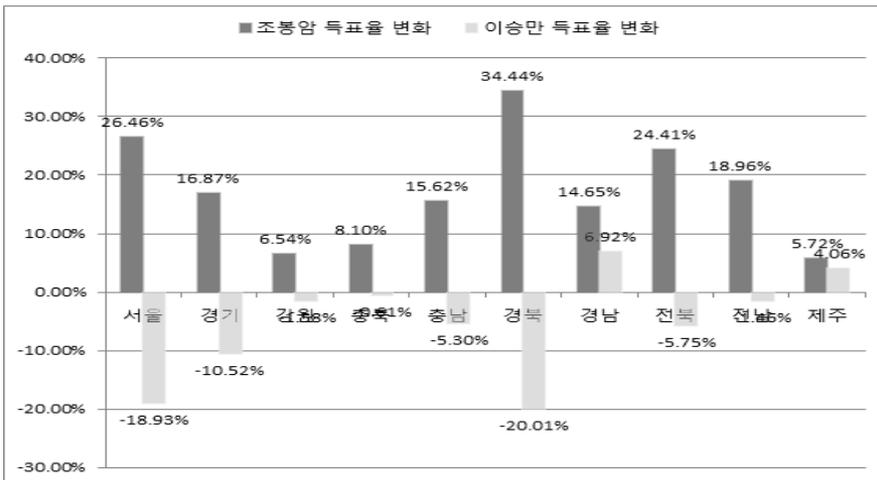
먼저, 56년 대선에서 이승만과 조봉암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나타낸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자. 이승만의 경우 득표율 상위 5개 지역은 강원(90.81/81.64%), 제주(87.86/78.15%), 충북(86.10/70.68%), 경기(77.14/57.39%), 충남(77.06/58.91%)였다. 제2대 대선 경우 상위 5개 지역은 강원, 경기, 충북, 제주, 충남 순이었다. 즉 52년 대선과 56년 대선에서 경기와 제주만 순위가 바뀌었을 뿐 이승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지역의 패턴은 유지되었다.

한편, 조봉암이 높은 득표를 한 상위 5개 지역은, 경북(45/35.88%), 경남(37.70/32.67%), 전북(39.83/32.11%), 서울(36.72/19.57%), 전남(27.89/22.30%)였다. 56년 대선에서 나타난 조봉암의 득표율 상위 5개 지역은 득표율의 차이가 있을 뿐 52년 대선에서 나타난 패턴과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52년 대선과 56년 대선은 전혀 다른 정치적 상황에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거의 결과에는 상당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무효표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효표의 과반에 가까운 46.71%가 무효표로 확인된 서울 지역이었다. 조봉암이 서울에서 얻은 표(33.72%)를 감안할 때 압도적인 다수(무효표와 조봉암 지지표)의 서울 유권자들이 이승만 정부에 등을 돌

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sup>10)</sup> 무효표가 가장 적게 나온 지역은 강원도로서 단지 10.09%만이 무효표로 확정되었다. 이 지역의 매우 적은 무효표는 52년 대선에서 90%가 넘는 이승만 지지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지역의 보수성에 일차적으로 기인하였을 것이다. 또한 군부대와 국가기관을 동원한 관권선거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은 52년 대선과 56년 대선에서 나타난 이승만과 조봉암의 지역별 득표율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조봉암의 득표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상위 5개 지역은 경북(34.4%), 서울(26.46%), 전북(24.41%), 전남(18.96%) 순이었다. 반면에 이승만의 득표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상위 5개 지역은 경북(-20.1%), 서울(-18.93%), 경기(-10.52%), 전북(-5.75%), 충남(-5.30%)이었다. 52년 대선과 56년 대선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이승만과 조봉암의 득표율 변동의 차가



<그림 3> 52년 대선과 56년 대선 득표율의 변화(이승만 조봉암 비교)

출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 (<http://info.nec.go.kr>).

참고: 후보자의 득표율은 “후보자의 득표수/(전체투표수-무효투표수)”로 측정됨. 그리고 그림 3에 사용된 후보자의 득표율 변화는 “3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득표율-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득표율”로 측정.

10) 이승만이 여당의 총재가 되어서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해서 개헌과 연계하여 치렀던 1954년 제3대 총선에서도 자유당은 서울지역의 총의석 16석중에서 단지 5석만을 얻었다.

가장 큰 상위 5개 지역의 순위는 경북(54.41%), 서울(45.39%), 전북(30.16%), 경기(27.39%), 전남(20.42%)이었다.

<표 2>는 56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제4대 부통령 선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조선 민주당의 이윤영, 대한 국민당의 윤치영, 진보당의 박기출, 무소속의 이범석, 백성육 후보 등 8인이 출마하였다. 선거 도중 진보당 추진위의 박기출과 이종태가 사퇴하여 6명의 후보자가 경쟁하였다. 투표인 총수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자 보다 2,869명이 적은 9,064,194였다. 이 중 유효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95.3%에 해당하는 8,642,494였다. 개표결과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46.4%(4,012,654)를 득표하여 44.0%(3,805,502)를 얻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2.4%(207,152)차로 누르고 제4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표 2〉 56년 부통령 선거 투개표 현황

시도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유효투표율	상위 두 후보자별 득표수				계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계				장면	비율	이기붕	비율	
서울	703,799	586,553	22,099	608,652	95,147	86.5	96.4	451,037	76.9	95,454	16.27	586,553
경기	1,119,859	1,002,569	56,075	1,058,644	61,215	94.5	94.7	450,140	44.90	424,104	43.30	1,002,569
충북	521,061	473,777	25,673	499,450	21,611	95.8	94.9	159,310	33.63	245,218	51.76	473,777
충남	961,871	857,172	42,998	900,170	61,701	93.6	95.2	374,209	43.66	364,750	42.55	857,172
전북	910,566	839,411	35,411	874,822	35,744	96.1	96.0	428,410	51.04	338,283	40.30	839,411
전남	1,330,477	1,212,411	73,863	1,286,274	44,203	96.7	94.3	529,341	43.66	549,279	45.30	1,212,411
경북	1,492,013	1,316,168	81,995	1,398,163	93,850	93.7	94.1	715,342	54.35	475,754	36.15	1,316,168
경남	1,646,398	1,483,338	54,562	1,537,900	108,498	93.4	96.5	778,903	52.51	623,409	42.03	1,483,338
강원	804,325	763,132	26,110	789,242	15,083	98.1	96.7	103,493	13.26	611,704	80.16	763,132
제주	116,501	107,963	2,914	110,877	5,624	95.2	97.4	22,469	20.81	77,547	71.83	107,963
합계	9,606,870	8,642,494	421,700	9,064,194	542,676	94.4	95.3	4,012,654	46.43	3,805,502	44.03	8,642,494

출처: 대한민국 선거사 제1집, 739-741.

참고: 후보자별득표율중 조선 민주당, 이윤영, 대한 국민당 윤치영 후보, 백성육 이범석 무소속 후보는 제외, 계는 이들 후보의 득표수를 합한 수치.

장면, 이기붕 득표율은 필자가 계산.

민주당의 장면과 자유당의 이기붕의 표차가 단지 20여만 표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장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진보당 추진위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출의 사퇴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sup>11)</sup>

56년 부통령 선거결과를 동시에 치러진 56년 대선 결과와 비교해보면 유사점도 존재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점도 나타난다. 먼저, 조봉암의 득표율이 높은 시도와 장면의 득표율이 높은 시도는 일정하게 중복된다. 장면이 과반수를 득표했던 서울(76.9%), 경북(54.35%), 경남(52.51%), 그리고 전북(51.04%)이 조봉암의 득표율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네 지역과 득표율의 순위는 차이가 있지만 일치한다(조봉암의 경우 경북, 전북, 전남, 서울 순). 둘째, 장면은 서울에서 유효투표의 4분의 3이 넘는 78.9%를 득표하여 이기붕을 압도하였다. 조봉암이 서울에서 유효투표의 38.7%(119,129)를 득표하여 선전하였으나 조봉암에 대한 지지는 총 투표수의 46.71%(284,359)에 해당하는 무효표보다 여전히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수도였던 서울 지역의 과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56년 대선에서 급서한 야당 후보 신익희에 대한 추모 표를 던졌고 같이 치러진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IV. 조봉암 과반득표에 대한 경험분석-시군구 단위

개인적 수준의 여론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차선책으로 집합적 수준의 자료에 의존하여 경험 분석을 진행한다. 56년 대선에서 조봉암 득표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얻은 득표율

11) 민주당이 신익희 사후 사실상 야당 단일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에 지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당 추진위 부통령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보당 선거대책위원장 서상일은 “부통령 후보의 지지에 관하여는 가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바다”라고 진보당의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 1956년/05/11, 정태영외 1999, 128).

과 다른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의 경험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조봉암과 장면이 56년 대선(모델 1)과 부통령선거(모델 2)의 180개 시군구에서 얻은 득표율이다. 독립변수는 해방 후 좌익 지수이다. 이 변수는 손호철(2010, 부록)등에서 사용된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 또한 시군구 단위로 측정되어있다. 도시화 지수는 대도시는 3, 시 지역은 2, 군 지역은 1을 부여하여 변수를 도출하였다.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얻은 득표율과 56년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이 얻는 득표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모델1 과 2에서 장면의 득표율과 조봉암의 득표율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또한 조봉암이 처음 출마했던 52년 대선에서 득표율이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얻은 득표율에 미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델1에서 52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얻은 득표율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52년 대선에서 이승만이 얻은 득표율과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얻은 득표율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모델 1). 또한 52년 선거에서 민주국민당 부통령 후보로서 출마했던 조병옥이 얻었던 득표율과 56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신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를 포함시켰다(모델 2).

또한 56년 대선 직전에 치러진 선거가 한국 전쟁 후 54년에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는 47.9%를 득표하여 집권당인 자유당의 득표율(36.8%)을 앞섰으며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득표율(7.9%)을 압도하였다. 반이승만 비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에 대한 지지로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54년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을 분석에 포함시켰다(모델 1). 같은 맥락에서 56년 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장면의 득표율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면 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와 1956년 선거에서 장면에 대한 지지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델 2에서 이를 검증하였다.<sup>12)</sup>

12) 경험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대상인 모델1 회귀분석 후에 분산팽창계수(VIF)를 계산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주요변수들간의 분산팽창계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1952년 이승만 득표율(6.06)과 1952년 조봉암 득표율(5.51)의 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경계(1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표 3> 56년 대선에서 조봉암 득표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1	모델2
	56년 조봉암 득표율	56년 장면 득표율
	계수(표준오차)	계수
56년 선거 장면/조봉암 득표율	0.566 (0.061)**	0.679 (0.079)**
52년 조봉암 득표율	0.471 (0.305)	—————
52년 이승만/조병옥 득표율	-0.217 (0.157)	-0.155 (0.147)
54년 자유당 득표율	0.464 (0.105)	—————
54년 민국당 득표율	—————	0.234 (0.248)
54년 무소속 득표율	0.027 (0.170)	
도시화(1:군, 2:시, 3:대도시)	1.571 (2.724)	7.294 (3.529)**
해방후 좌익지수	0.410 (0.172)**	-0.072 (0.206)
상수	7.560 (19.881)	17.135 (4.058)**
사례	131	122
R-squared	0.7209	0.5713

출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 (<http://info.nec.go.kr>).

<표 3>은 56년 정부통령 선거 결과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p>13)</sup> 아래에서는 <표 3>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두어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경쟁적 해석들을 평가한다.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는 1954년 자유당(2.08), 1954년 무소속(2.20), 1956년 장면 득표율(1.73), 도시화(1.39), 해방후좌익지수(1.34)로 나타났다.

13) 이 글의 분석이 집합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집합자료에서 나타난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 수준의 투표행태로 직접 추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수준의 여론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적 자료를 통한 분석은 불가피하다. 이 글의 분석은 제한적인 자료 속에서 조봉암의 약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1. 신익희 동정표인가?

신익희의 급서로 인해서 발생한 예외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치러진 56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의 20.4%에 해당하는 무효표가 발생하였다. 민주당은 사실상 야당 단일 후보가 된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자당 후보였던 고 신익희 후보에 대한 추모를 독려했다. 신익희 후보의 서거 다음날 민주당은 “다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여 싸우고 싶으나 법적 불비로 그 길이 두절되었고, 본당 이회의 대통령 후보자는 그 정치적 행상이나 노선으로 보아 그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정권교체로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구현하려던 초지의 관철을 후일로 미룬다.”고 발표하였다(서중석 1999, 126-127).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조봉암이 얻은 2백만 표 중 일부가 선거 과정에서 급서한 신익희에 대한 동정표라는 해석이 존재한다. 당시의 유력 신문에 따르면 “조봉암 씨는 당시(52년 대통령선거)의 득표보다 2.5배를 상회하고 있는 바 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씨가 투표 10일전에 급서한데 기인하여 고 신 씨를 지지하던 유권자의 일부가 조 씨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조선일보, 1956/05/18, 문중섭 2007, 75에서 재인용).

<표 3>에서 제시된 관련 변수들과 조봉암 득표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자.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봉암이 이승만에 앞서서 과반을 득표한 지역의 득표율과 이 지역의 (신익희 추모표로 추정되는) 무효표 비율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두변수 사이에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0.0772)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4)</sup> 이러한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우회적인 방법은 민주당 후보로서 부통령에 당선되었던 장면의 득표율과 조봉암의 득표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문중섭 2007). 상관관계 분석결과 56년 대선에서 장면 득표율과 조봉암의 득표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0.7649(신뢰수준 0.001에서 유의미)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56년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의 득표율이 같이 치러진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득표율에 유의

14)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확인되었다<표 3>. 즉 유일하게 남은 민주당 후보였던 장면에 대한 지지와 유일한 야당후보였던 조봉암에 대한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조봉암의 득표의 증가가 신익희 추모 표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논리이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선거과정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 56년 대선을 앞두고 신익희와 조봉암은 이승만 독재에 반대하기 위한 공동전선의 구축에 노력하였다. 신익희와 조봉암은 선거전 조봉암·박기출·신익희·장면의 4자회담(장면의 불참으로 3자회담)을 개최하고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였다.<sup>15)</sup> 하지만 신익희와 조봉암의 후보단일화 목적은 신익희의 급서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은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출을 사퇴시킨다. 광범위한 부정선거와 개표에도 불구하고 장면이 이기봉에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박기출의 사퇴로 인한 사실상 부통령 후보단일화였다. 이를 통해서 진보당의 지지표가 부통령선거에서 장면의 지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통령 장면의 득표율 결정요인에 대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표 3>)이 이를 확인했다. 따라서 비록 장면의 득표율과 조봉암의 득표율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고 하더라도 이를 단지 신익희 추모표의 영향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신익희 추모 표 가설은 투표용지에 사망한 신익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무효표가 되더라도 신익희의 추모 표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봉암을 지지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손호철 2010). 먼저, 민주당은 사실상의 야당 단일 후보였던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신익희 사후 진보당과 민주당은 연합전선의 실패를 놓고 서로 강한 비난전을 주고받았다. 둘째, 민주당과 진보당의 강령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진보당의 중심 공약이었던 평화통일론과 피해대응을 위한 정치적 노선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이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박기출의 경우처럼 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

15) 조봉암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대통령은 신익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사퇴한다. 둘째, 거국내각이란 공연한 말일테니 당선되거든 민주당 단독 내각으로 책임정치를 펴기 바란다. 셋째, 야당 연합의 목적은 정권교체이다. 부통령은 정권교체와 무관한 자리이니 진보당의 박기출에게 양보하기 바란다(정태영 2006, 184)

진보당 지지표가 민주당에 갈 수 있었겠지만 신익희에 대한 추모적 지지라는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익희 지지자의 다수가 조봉암에 대한 지지로 표출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서중석 1999, 155-15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56년 대선에서 나타난 조봉암에 대한 지지는 단순한 신익희 추모표로 해석하기 보다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sup>16)</sup> 이승만 독재를 반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유력한 민주당 후보가 사망함으로써 차선책으로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또한 왜 어떠한 유권자들은 차선책으로 조봉암을 지지했으며 다른 유권자들은 무효표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2. 남아있던 진보세력의 지지인가?

또 다른 해석은 조봉암이 56년 대선 얻은 인상적인 지지는 해방공간과 단독정부의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과정을 거치면서 위축되면서도 남아있던 진보세력들에 의한 지지라는 것이다(한국정치연구회 1990; 오유석 1992; 손호철 2011). 이러한 시각은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지지가 높았던 경북, 경남과 전북, 전남이 과거 1920~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빈농과 소작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반을 두고 영호남에서는 비합법 농민조합운동인 적색농조 운동이 활발했다. 또한 이 지역은 해방 정국에서 인민위원회와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이 강했던 지역이었다(문중섭 2007, 73).<sup>17)</sup>

이러한 시각에서 조봉암의 득표를 진보 지수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인상적인 연구는 손호철(2011)의 연구가 있다. 손호철은 영호남 시군단위 득표율을 진보관련 지표와 연관시킴으로서 ‘진보적 대중기반 잔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는 분석결과 잔존 진보세력의 지지로서 조봉암 지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16) 이 해석은 세명의 논평가 중의 한분의 지적에 빚지고 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논평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7) 대표적인 보수야당 정치인은 유진산등도 조봉암의 표는 “보도연맹 또는 6.25전에 좌익 세력이었던 시골의 잠복세력들이 보낸 지지표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중앙일보 1982/10/20, 손호철 2011에서 재인용).

하였다.<sup>18)</sup> 같은 맥락에서 조봉암 득표와 일제시기 사회운동지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문중섭(2007)은 전북에서는 조봉암 득표와 사회운동지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경남에서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전남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반면에 그의 분석에서는 경북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글이 전국의 18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해방 후 좌익지수가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득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확인되었다. 조봉암이 과반 이상을 득표한 지역은 압도적으로 영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 가변수를 도출하여 좌익지수와 함께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좌익지수는 중요성이 사라졌고 경상북도 지역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조봉암 과반득표 20개 시군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9개 지역이 경북에 집중되었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표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방 후 좌익지수는 부통령 장면의 득표율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도시화 지표가 부통령 장면의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의 특징적 현상이었던 여춘야도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 3. 조봉암의 정치노선에 대한 지지

또한, 조봉암과 진보당의 정치노선에 대한 지지가 조봉암의 인상적인 득표에

---

18) 그는 진보적인 지표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봉암 지지가 많이 나오지 않은 지역인 전남의 경우 대표적인 양민학살 지역이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운동이 강했으며 격렬한 투쟁이 있었으며 패배와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진보적 성향의 정치적 표출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거창, 여수, 순천과 같은 지역은 진보의 전통이 약했던 곳에서 학살의 경험이 의식을 진보 화시켰다고 주장한다(손호철 2011). 이러한 주장은 흥미로운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인상적 비평에 머무른 해석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손호철의 분석은 개척적인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여타의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기여했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문중섭 2007;최정기 2001). 조봉암은 초대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의 책임자였다. 해방정국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자로부터 전향한 조봉암은 사회민주주의적인 노선을 대표하는 유력한 대중적인 정치인이었다.

〈표 4〉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선거공약.

조봉암 의 선거 공약
1.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유엔 보장아래 민주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을 성취한다.
2.외교를 쇄신하고 집단 안전보장의 확립에 의하여 국방문제를 해결하고 군비부담을 경감한다.
3. 집권자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체제를 확립한다.
4. 서민 생활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해무익한 간섭,허가 제도를 일소한다.
5.행정 기구를 대폭 감소시키고 공무원의 생활을 완전히 보장한다.
6. 종래의 대중적 수탈정책을 폐지하고 생산·분배·소비에 걸친 종합적인 연차 계획경제를 수립하여 법령화한다.
7. 농촌 고리채를 일정기간 지불 유예케 하고 현물세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농민협동조합을 조직한다.
8.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다.
9. 상이군경 유족 등의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한다.
10. 교육의 완전한 국가보장제를 실시하고 학제를 개혁하여 연한을 단축한다.

출처: 정태영(2006, 187-188).

<표 4>는 56년 대선에서 제출된 조봉암의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조봉암의 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약은 평화통일 추진과 농촌 고리채 일정기간 유예와 현물세 폐지로 대표되는 수탈 대중을 위한 정책이다. 조봉암의 평화통일 공약은 한국전쟁 와중에서 실시되었던 52년 대선 선거공약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다.<sup>19)</sup> 하지만 56년 대선에서 제출된 공약이 선거에 임박해서 급조된 공약

19) 통일과 관련된 조봉암의 공약은 “국민총력 집결의 체제를 확립하여 유엔군과 적극 협조를 함으로써 하루빨리 승리의 길로 성전의 완수를 기할 것이다.”였다(조선일보, 1952년 7월 31일, 서중석 1999, 64쪽 재인용). 이러한 공약은 한국 전쟁와중에 치러진 선거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아니었다. 조봉암의 평화통일에 대한 정견은 제네바회담이 열리기전 1954년 3월에 제출한 『우리의 당면 과업』에 잘 나타나있다. 이 글에서 조봉암은 통일 방법으로서 집권세력의 북진통일과 같은 무력통일이외의 정치적 통일, 즉 평화통일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조봉암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룰 제네바 회담(1954)을 맞이하여 극우 반공세력에 의해서 독점된 통일논의에 균열을 내고자 하였다.

조봉암은 초대 내각에서 토지개혁을 담당했던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대중을 위한 정치적 노선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의회정치노선을 고수했다. 이러한 조봉암의 의회주의적 개혁노선이 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의 인상적인 득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회적으로, 당시의 증언을 통해서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조봉암지지 세력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탄압, 보수 야당에 의한 견제, 그리고 각개약진하면서 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진보 세력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조직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봉암에 대한 지지는 공식적인 조직적인 연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존재하였다.<sup>20)</sup> 조봉암은 농민, 지식인과 사회운동가, 그리고 학생과 같은 집단에서 인기가 많았다. 한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 중 많은 사람이 분단 상황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사회 민주주의나 민주 사회주의 등 중도적인 정치세력을 선호하고 있었다. 조봉암이나 윤길중의 주장이 그러했으며 학생들이 이들을 따른 이유가 그것이었다(광주지역 학생운동 지도자 이일행의 증언, 최정기 2001, 81).

또한 조봉암의 일관된 피해대중 옹호 노선이 전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농민들과 노동자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당의 결성을 추진했던 조봉암은 농민과 노동자

20) 전남지역의 진보당 조직적 네트워크에 대한 한 연구(최정기 2001, 84)에 따르면 외부로 드러난 진보당 전남도당 간부는 20여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1천여명에 이르는 은폐된 당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단체를 포괄함으로써 피해대중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sup>21)</sup> 한 증언을 살펴보자. 조봉암이 과반수 가까운 득표(유효 투표자수의 48.9%)를 획득한 김해군 출신으로 부산에서 교사를 역임한 이00 씨는 “조봉암 후보가 진보세력임을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였고, 하층민들의 지지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고성군의 농민인 정00씨등 2명은 “고성에서 조봉암의 지지표가 많이 나온 것은 당시 고성은 5-6명의 대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횡포를 부림으로써 소작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농지개혁을 주도한 조봉암에 대한 토지무상분배 기대와 무상의료에 대한 약속등이 이유”라고 대답했다(문중섭 2007, 7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봉암에 대한 지지가 조봉암의 정치노선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V. 결론을 대신하여

56년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 먼저, 56년 대선은 집권 3기를 맞이하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광범위한 관권 선거에도 불구하고 56년 대선에서 진보세력을 대표했던 조봉암은 인상적인 득표를 하였고 민주당의 장면은 이기붕을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후 자유당 내의 소장파 50여명이 혁신정치를 위해서 서명을 하였고 독재 연장 저지를 위한 내각제 개헌 움직임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강압적 권위주의 통치의 강화를 통해서 위기 극복을 시도하였다. 56년 대선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와 재 보궐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광범위

21) 조봉암의 ‘자유사회당 비밀서클’과 연관이 있던 인사들 중에서는 중도파와 혁신계 그리고 족청계 인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농총과 노총, 부두노련과 같은 농민 노동자 단체 간부들이 다수 존재했다. 조봉암은 전국적인 농민조직으로 농민회의를 조직하였고 회장에 추대되었다(서중석 1999, 45; 정태영 2005, 117).

한 관권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조작하였고 이승만 정권은 결국 3.15 부정선거를 이후 폭발한 국민들의 분노로 붕괴한다.

둘째, 56년 대선 결과 보수 야당 길이 제도화되었다. 민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세력과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은 범야신당 추진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선택한다. 만약에 민주당과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 반이승만 전선에서 연합할 수 있었다면 한국형 자유주의-사민주의 연합이 형성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 연합이 사민주의 세력의 강경한 노선 때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이념적 편협성 때문에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박명림 1999, 144). 단독 정부수립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중간과는 제2대 총선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다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국회 프락치 사건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중 다수가 남북·월북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52년 제2대 대선을 통해서 이승만의 경쟁자로 부상한 조봉암은 세력화에 실패하고 있었던 사회민주세력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지도자였다. 56년 대선 과정에서 보수야당과 조봉암으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이승만에 맞서는 단일 대오를 결성하지 못하고 결별하였다.

셋째, 조봉암이 약진했던 56년 대선과정과 결과는 역설적으로 당시 한국 정치의 범위와 한계(boundary and limitation of Korean politics)를 잘 드러냈다. 조봉암은 유력 대통령 후보였지만 관권의 조직적인 방해와 탄압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56년 대선 운동과정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신익희의 급서로 유일한 야당 대선후보가 된 조봉암은 선거 수일 전부터 잠적하여 선거 결과가 확정될 무렵에서야 사무실에 나타날 수 있었다. 선거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 과정에 대해서 보수야당은 침묵하였다. 피해대중을 위한 정치와 평화통일을 주창하며 제3의 길을 추구했던 조봉암의 정치적 배제는 냉전반공주의가 지배했던 당시 한국 정치의 범위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이 글은 56년 대선 결과를 조봉암의 약진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먼저 시도별 득표율의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52년 제2대 대선결과와 일정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조봉암의 득표는 해방 후 좌익지

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통령으로 당선된 장면에 대한 지지와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면의 득표에는 중도 사퇴한 박기출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터뷰를 포함한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56년 대선에서의 조봉암 지지는 피해대중을 위한 조봉암의 일관된 노선과 평화통일을 추구한 제3노선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한 역사적 계기였던 48년 체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박찬표 2010). 하지만 48년 체제의 등장이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지배했던 보수독점의 정당체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56년 대선이었을 것이다.<sup>22)</sup> 조봉암으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56년 대선에서 약진을 마지막으로 민주화가 될 때까지 이후 30여 년 동안 정치적 경쟁에서 배제되었다. 56년 대선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경로가 제도화되었다.

---

22)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범야신당 추진과정에서 조봉암의 영입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김성수가 야당통합을 마무리했다더라면 그리고 조봉암과 목계를 통해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신익희가 선거과정에서 급서하지 않았더라면 조봉암과 진보당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 참고문헌

- 문중섭. 2007. “1950년대 한국 정치이념 지형의 일면 - 제3대 대통령선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시민윤리학회보』 20권 2호. 63-86.
- 박명림. 1999. “한국 민주주의와 제3의 길-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통일의 결합-조봉암 사례연구.” 『죽산 조봉암 전집 6-한국 현대사와 조봉암 노선』 서울: 세명서관.
- 박찬표. 2010. 『한국의 48년체제』 서울: 후마니타스.
- 박태균. 1995. 『조봉암 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서복경. 2011. “제1공화국의 선거.” 『한국 선거 60년: 이론과 실제』 한국선거학회 편, 서울: 오름.
-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 上』 서울: 역사비평사.
- 선거관리위원회. 1973. 『대한민국 선거사 제1집』.
- 손호철. 2010. “1956년과 1963년 대선-조봉암과 박정희의 득표는 잔존 좌익의 지지였다.” 『현대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서울: 이매진.
- 이완범. 2004. “1950년대 후반 한국정치사 연구.”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문정인·김세중 편, 서울: 선인.
- 정승현. 2013. “조봉암 진보당과 한국현대 이념.” 『현대정치연구』 6권 1호.115-143.
- 정태영·오유석·권대복 편. 1999. 『죽산 조봉암 전집-죽산 조봉암 활동자료 II』 서울: 세명서관
- 정태영. 2006. 『조봉암과 진보당: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삶과 투쟁』 서울: 후마니타스.
- 최정기. 2001. “누가 조봉암을 지지하였는가?” 『지역사회연구』 제9권 1호. 67-89.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 (<http://info.nec.go.kr>).

투고일: 2017.02.20.	심사일: 2017.02.27.	게재확정일: 2017.04.06.
------------------	------------------	--------------------

##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ho Bongam's Voteshare in the 1956 Presidential Election

Kang, Woo Jin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1956 presidential elections with a focus on Cho Bongam's rising. First, with an analysis of the vote-share at the city and gun level, this study found a kind of consistency between the 1952 presidential election. Second, this stud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voter's support for Cho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Cho's vote-share in the 20 city and gun area where he earned more than 50% of the valid vote and related indices. Third, this study examines conduct regression analysis for determinants of citizen's support for Cho and their support for Jang Myun.

Results demonstrate three quarters of Cho's majority vote is concentrated on the Kyeongsan region (Kyungbook 9, Kyungnam 6). Also, there is a signifiant relationship between Jang Myun's vote share and Cho's vote-share. In addition, reft-index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45-48)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on Cho's vote-share. A regression analysis confirms above two results. An analysis of Indirect source such as interview demonstrate voters' support for Cho could be voter's support for Cho's political plan.